

#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6 Autumn Vol.46

Special Theme

고객니즈 파악의  
중요성



## In Schaeffler

page 18 다시 찾는 수학여행

"나 다시 돌아갈래!" 요술 바이킹을 타고, 소년으로 돌아가다



## For Life

page 28 사랑의 세레나데

내가 밝게 비춰줄게! 그댄 나와 함께 '꽃길'만 걸어요~



## To Communicate

page 50 특집

미래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사고, FSTA 2016을 가다



C o n t e n t s

14



24



32



40



# 세플러+원

2016 AUTUMN Vol.46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Cover Caption

오토모티브 애프터 마켓(AAM)은 세플러의 오토모티브 사업분야 중 한곳으로 자동차 정비소들을 통해 세플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교체용 부품 키트(KIT)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컨셉으로 한 이번 2016년 가을호 <세플러+원>의 표지는 IT 고광우 사원과 AAM 박선영 사원이 함께 꾸며주었습니다.

발행일 2016년 10월 17일(통권 제46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박영곤  
 발행처 서울 중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019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광림 출력  
 인쇄 솔텍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집지윤리강령 및 집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ver Story

04 일상 속의 세플러  
 풍성한 결실의 순간을 본 적 있나요?

In Schaeffler

- 06 테마 노트  
 고객의 말과 행동 너머를 보다
- 10 리더에게 묻다  
 법무담당 소병용 상무
- 12 제조업의 미래  
 미래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SW) 플랫폼'
- 14 무모한 도전  
 안산공장 엔진 컴포넌트 세그먼트 VS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 18 다시 찾는 수학여행  
 벨트&체인드라이브 시스템 BU 영업
- 22 긴급상황 119  
 자전거 사고, 당황하지 마세요

For Life

- 24 아빠 어디가  
 전주공장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호중 사원
- 28 사랑의 세레나데  
 서울사무소 커뮤니케이션&마케팅 이성규 대리
- 32 세플러 미식회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권재홍 팀장
- 36 행복 스케치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자녀 그림 콘테스트>  
 장려상과 이외 작품
- 38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디오니소스가 자랑하는 성대한 축제  
 독일 옥토버페스트
- 40 같이의 가치  
 '허그인'을 통해 본 공유경제 이야기
- 42 Law school  
 소비자가 알 권리 '옥외가격표시제'

To Communicate

- 44 새로운 시선  
 세플러코리아를 풍성한 결실과 수확으로 이끌  
 16명의 상상한 열매를 소개합니다!
- 47 따뜻한 시선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인라인스케이트 봉사
- 50 특집  
 미래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사고, FSITA 2016을 가다
- 54 Schaeffler FOCUS
- 57 Schaeffler NEWS
- 61 Schaeffler Hotline

세플러와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 풍성한 결실의 순간을 본적 있나요?



곡물이 영글고, 높은 하늘과 소슬한 가을바람에  
황금과곡이 출렁거리는 계절 가을.

지난 일 년간의 결실을 거두기 위한 가을걷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이때 만큼 일손이 절실한 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판이죠.

사람의 손으로 채울 수 없다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농기계입니다.  
요즘은 몇 대의 농기계가 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황금벌판의 주인공이 되어 경쾌한 수확을 합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 검게 그을린 피부,  
굽은 등허리와 울퉁불퉁한 손마디를 가진  
농부의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었죠.  
이제는 에어컨이 승승 나오는 트랙터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커다란 바퀴 앞에  
알알이 익은 벼들이 자루에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피약벌을 밀짚 모자 하나로 피하던 날도 있었건만  
이제는 트랙터 안의 그늘이 든든하게 햇볕을 막아줍니다.

온 가족이 모두 매달려 고된 수확을 하던 시간이  
가벼운 발걸음이 가득 찬 여유로운 시간으로 바뀌었죠.  
농가의 일상을 바꾼 농기계가 가을을 더욱 기쁘게 합니다.

농부의 굽은 등허리를 펴게 하고  
풍성한 결실의 달콤함을 보게 하는 기술,  
세플러가 함께합니다.



농기계 속에 숨어있는 세플러의 기술, 볼베어링 · 테이퍼롤러베어링 · 니들롤러베어링

트랙터, 콤바인 등과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농기계에는 볼베어링, 테이퍼롤러베어링, 니들롤러베어링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지푸라기 등 외부 이물질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씰(Seal)이 적용된 밀봉 형태의 베어링이나 이물질 노출에 강한 장수명 열처리(HL)가 적용된 베어링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상용차처럼 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높은 힘(마력)을 요구하므로 경우에 따라 표준 베어링보다 큰 전동체를 사용하는 고용량 베어링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현재 디젤엔진의 성능 향상, 변속기의 소형화, 뛰어난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베어링 성능 향상 및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런 시장 환경에 맞는 베어링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고객니즈 파악의 중요성

고객의 말과 행동  
너머를 보다

## 고객니즈를 정확하게 조준하다

1886년에 창립된 독일 보쉬(Bosch)는 올해로 130년이 된 전통있는 회사다. 보쉬의 주력제품은 창업한 다음 해에 출시된 자동차용 엔진 점화기, 디젤 연료분사장치인 커먼레일, 이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동안전장치인 ABS시스템(Anti-lock Brake System)을 들 수 있다. 이들 제품 중에서도 ABS시스템은 보쉬가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조준해 성공한 대표 사례다.



독일 보쉬(Bosch)

ABS시스템의 토대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자동차를 기계부품들의 조립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쉬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장치 부품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그들은 남보다 일찍 전장 부품 사업에 뛰어들어서 기술력을 차곡차곡 축적했다. 197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보쉬는 주요 고객인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 Benz)가 고객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강한 니즈를 갖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보쉬는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인 ABS시스템 개발이라는 역사를 쓰는데 성공한다. 보쉬의 ABS시스템은 '벤츠=안전성'이라는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각인시켜 주었고 벤츠 성공 신화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보쉬는 ABS시스템 이후에도 차량 주행 안전성을



후지필름 '아스타 리프트' 화장품

크게 향상시킨 전자식 주행 안전성 제어 장치(Electronic Stability Program) 등으로 관련 시장점유율은 50%를 웃돌 정도이다. 보쉬는 안전에 대한 고객들의 강력한 욕구를 정확하게 조준함으로써 성공 신화를 만들어 냈다.

## 핵심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키다

후지필름(Fujifilm)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코닥(Kodak)과 아그파(Agfa)는 몰락하고 말았다. 주력 시장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후지필름은 어떻게 고속 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후지필름은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았고, 이 기술로 새로운 고객 수요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후지필름은 사진용 필름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콜라겐'의 개발에 주력했다. 콜라겐은 노화된 피부의 회복을 돕는 효과가 뛰어나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었고 고객들이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후지필름은 콜라겐을 사람의 피부에 적용하는 시도를 집요하게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후지필름의 화장품 브랜드인 '아스타 리프트'이다. 이 제품은 콜라겐 연구를 통해 축적한 나노 기술과 항산화 기술 등을 화장품 개발에 접목해 태어났다. 현재 후지필름의 총 매출에서 화장품과 건강 관련 사업 매출이 무려 44%를 차지하고 있다.



“고객니즈를 조준하라.”

이 일에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지지만

패배한 자는 최악의 경우에

무대를 떠나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들은

고객니즈라는 과녁을 향한

활쏘기는 계속되고 있다.

2014년 23조 6천억 원의 매출액은 컬러필름이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자랑하던 2000년의 13조 6천억 원보다 73.1% 늘어난 성적표다. 한마디로 자신의 핵심역량을 활용해서 새로운 고객니즈를 발굴하여 신화를 만들어낸 사례라 할 수 있다.

**고객니즈 파악에 실패하다**

1980년대 말부터 맥도날드는 다이어트와 건강 열풍에 주목하였다. 맥도날드는 대규모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하여 다이어트 버거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놓치고 만다. 패스트푸드와 다이어트 버거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지에 대해 질문에 응한 고객들은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답은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1991년 맥도날드는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맥린'이란 다이어트 버거를 출시하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만다. 막상 고객들은 매장에서 먼 미래의 이익이 될 건강이나 다이어트보다도 당장의 기쁨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만것이다.

비슷한 일이 국내 여성잡지 <마리안느>에서도 일어난다. 섹스, 스캔들, 루머 등에 신물이 난 여성 독자들이 '무섹스, 무스캔들, 무루머'를 표방하는 잡지에 열렬한 성원을 보일 것으로 확신하였다. 창간을 준비한 사람들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자신들의 확신에 힘을 더해 주는 증거가 됐다. 당연히 주부들은 "그런 잡지가 나오면 사서 보겠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고객들은 때론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마리안느>는 창간 17호만인 1991년 1월에 부도를 내고 말았다.

**고객의 말과 행동 너머를 봐야 한다**

고객니즈는 다양한 시장조사 기법들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고객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제럴드 잘트만 교수는 "인간사고의 95%는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5%도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답한다. 고객들의 의식과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진짜 니즈를 간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강력한 호기심, 지속적인 관심, 탁월함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작아진다.



맥린이란 다이어트 버거를 출시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한 <맥도날드>



고객니즈 파악에 실패해 창간 17호만에 폐간을 한 여성잡지 <마리안느>

고객들의 진정한 니즈를 파악하길 원한다면 말과 행동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고객들이 무의식 깊숙이 숨겨진 욕구와 불편함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된 문제의식만 지니고 있으면 정보를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아도 유익한 정보가 스스로 다가온다"고 세븐일레븐(7-eleven)의 스즈키 도시후미 회장은 조언한다. 이처럼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항상 문제의식을 느끼고 살아가야 한다.

고객들의 의식과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진짜 니즈를 간파하기 위해선 고객을 향한 강력한 호기심, 지속적인 관심의 열정이 필요하다.



# ‘세플러코리아 지킴이’ 소비용 상무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법무담당 소비용 상무



개인인 개인, 부사와 부서가 만나 섬세한 톨너버처럼 움직이는 기업은 엄격한 물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업과 기업이 만나는 산업 현장이라면, 법은 더욱 중요하다. 이처럼 세플러코리아의 손익을 결정하는 최전선에서 특특히 제 역할을 해내는 ‘세플러 지킴이’ 소비용 상무를 만나본다.



## #1 사소하고 소소한 궁금증

**Q. 쉬는 날에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A.**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산이든 강이든, 서점이든 집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죠. 특히 저와 아이들 모두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Q.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노래방 18번곡이 있다면?**

**A.** 평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뉴에이지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노래방은 기본지 오래됐지만, 예전에는 록발라드를 좋아해서 김동환의 〈문어버린 아픔〉과 비람꽃의 〈비와 외로움〉을 즐겨 불렀고, 최근에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즐겨 부릅니다.

**Q.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것만 먹으면 해소 된다’는 힐링 푸드가 있나요?**

**A.** 단연코 ‘수제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을 정도로 수제비를 좋아해요. 모양새는 투박해 보이지만,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수제비가 떠올라 자주 찾곤 하죠. 특히 회사 근처에 있는 〈광화문 수제비〉, 〈삼청동 수제비〉를 좋아합니다.



## #2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

**Q. 소비용 상무의 청춘은 언제였나요?**

**A.** 청춘이 지녀야 할 가장 건강한 생각을 가졌던 대학시절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인생은 무엇일까’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답을 찾고자 했죠. 제 인생에 있어 인간의 삶과 고뇌를 고민하던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Q. 청춘과 함께했던 책은 무엇이 있었나요?**

**A.** 법대생이다 보니 사회과학 서적을 주로 읽었습니다. 그중 해방 전후 시기의 한국사를 조망할 수 있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유안진 시인의 수필집과 이문열 소설가의 소설집 같은 문학책도 읽으며 다양한 장르의 독서를 즐겼습니다.

**Q.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A.** 무엇보다 여행을 많이 떠나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게 늘 아쉬워서 도보여행에 대한 낭만이 있어요. ‘길에

서 삶을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여행을 하며 실컷 사색을 즐기고 싶습니다.

**Q. 지금의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포기과 좌절, 상실감으로 가득 찼지만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기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정신으로 꿈과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3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

**Q.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A.** 검사 같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확고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단 갈망이 있었어요. 불공평한 일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죠. 어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Q.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A.** 업무적으로는 세플러코리아가 더욱 성장해

법무조직의 크기에 인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늘 관심이 있던 약기와 목공을 전문적으로 배워 한적한 곳에 터를 잡아 공방을 차리고 싶습니다.



## #4 최전선을 지키는 해결사

**Q. 세플러코리아에서 나는 OOO다!**

**A.** 적과 맞서는 최전선의 위치에서 세플러코리아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해결사’라고 할 수 있죠.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늘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Q. 내가 세플러코리아 내에서 이것만큼은 가장 잘한다는 것은?**

**A.** ‘인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인사를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실 같은 역할을 하죠. 굳이 해야 하나 싶어서 인사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부터 인사를 해보세요. 삶의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Q. 어떤 상무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A.** 소비용을 떠올렸을 때 어려운 사람이 아닌 대화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친근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편안한 사람’이니까요.

**Q.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A.**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말고, 큰 그림 전체를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사람,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큰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갑시다.

“  
‘백척간두 진일보’  
(百尺竿頭 進一步)의 정신으로  
큰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갑시다.  
”



**Mini Profile**  
생년월일  
1969년 2월 28일  
학력  
O형  
최우명  
백척간두 진일보  
(百尺竿頭 進一步)

# 미래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SW) 플랫폼'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을 거머쥔 자가 정보통신기술(CT)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기존의 전통 제조업은 소프트웨어(SW)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지는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의 현주소를 알아보자.



## 기술 경쟁력보단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핵심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주도권이 기존 제철나 통신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최근 IT업계의 최대 화두는 소프트웨어다. 기술력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승패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제조는 협력업체에 맡기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샤오미는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스마트폰 사업 부진에 빠져 죽어가던 블랙베리를 살린 것도 소프트웨어였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줄 마법의 키워드다. 결국 앞으로 제조업계는 기술 경쟁력보단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다.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제조업의 강국인 한국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를 좌우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90% 이상 해외에 의존할 만큼 소프트웨어 산업에 뒤처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어렵게 키워온 ICT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해외 기업들이 독주하는 소프트웨어 시장

해외 전통 제조업체들은 발빠르게 하드웨어(HW)에 소프트웨어(SW)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BMW, 벤츠, 포드, 도요타, 테슬라 등 내로라하는 자동차기업들은 최근 IT 메카 미국 실리콘밸리에 앞다퉈 R&D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현지 인재를 대거 채용해 첨단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다.

또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오픈마켓의 에코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많은 HW와 SW 업체들이 안드로이드를 지원하고 있는 점과 구글 지도나 검색서비스 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구글은 지난 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차량에 적용시키기 위해 현대자동차, 아우디, GM, 혼다 등 글로벌 자동차 4개사와 IT전문업체 엔비디아(NVIDIA)가 연합해 오픈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Open Automotive Alliance)를 발족한 바 있다. 애플 역시 iOS를 기반을 'iOS in the car' 전략을 발표했다. 또 BMW, 벤츠, GM, 혼다 등과 협업을 통해 계기판과 센터콘솔 등을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량의 UI/UX를 혁신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동차 업체들이 자체 개발하던 윈도 기반 플랫폼을 '윈도우 8' 타입 디자인으로 통합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차내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미러링크 방식을 채택했다. 덧붙여 최근 출시한 윈도우 10을 앞세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에도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내,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이 절실

굳건하리라고 믿었던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와 융합이 뒤처지면서 최근 하락하는 추세다. 세계적 흐름과 달리 한국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만한 플랫폼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망이 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한국도 재빨리 제조업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제조업과 ICT를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해답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외부 인력들을 영입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통해 차량을 제어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갤럭시 기어를 통해 BMW i3의 제어 기능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미러링크 시스템을 활용해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한창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인텔과 함께 '타이젠(Tigen) OS'를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에 탑재하기 위해 도요타, 재규어, 랜드로버 등과 협력 중이다. 두산중공업 역시 2014년 창원 본사에 '발전소 원격관리서비스센터(RMCS)'를 개설한 데 이어 지난해 서울사무소에 '소프트웨어센터'를 열었다. 이 두 곳은 발전소 운영정보를 빅데이터화 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소 이용률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산중공업은 두 센터의 역량과 기존 발전설비 설계·제작·정비·서비스사업 등을 연계해 세계 발전서비스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높이 더 높이, 차곡차곡 협동심을 쌓아 올리다



별스럽게 뜨겁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었다. 안산공장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와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는 울여름을 별 탈 없이 잘 이겨낸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즐거운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 종이컵을 차곡차곡 쌓으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협동심을 쌓아올린 그 현장을 찾아가 보자.

왼쪽부터)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  
김태현 차장  
한상준 차장  
김진 세그먼트장  
안상철 대리  
정태기 부장  
박승범 과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이승민 세그먼트장  
장경훈 대리  
김명훈 대리  
김상덕 과장  
박진열 대리



안산공장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

VS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반자

해가 천천히 어스름을 낚는 오후 다섯 시쯤, 푸르렀던 나무가 노란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는 안산공장 근처 공원으로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와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사우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무더웠던 여름을 잘 견뎌낸 사우들은 반가운 가을을 맞아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즐거운 대결을 펼치기 위해 잠시 바쁜 업무를 내려놓았다. 팀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라면 술자리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서 함께 공원에 온 것은 처음이라는 사우들. "근처에 이런 공원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어디동절해 보였다.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 정태기 부장은 "우리 두 팀은 워낙 사이가 좋아서 단합이 필요 없다"고 농담을 하며 두 팀이 평소에도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자랑하듯 내비쳤다.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와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는 협력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다른 동료애를 과시한다. 생산하는 제품군은 다르지만, 생산의 기본 프로세스는 같기에 늘 부지런히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해 회사 안에서나 밖에서나 끈끈한 사이를 이어가고 있다.

##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마음을 모으다

첫 번째 대결은 팀원들의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종이컵 '높이' 쌓기 대결. 주어진 20개 종이컵을 120초 안에 어떤 방식이든 무조건 높이 쌓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결 시작 전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사우들은 "모든 바람아, 엔진 콤포넌트에게만 불어다오"라며 개구쟁이처럼 장난을 치며 긴장을 풀었다. 두 팀은 손에 난 땀을 바지에 쓱쓱 닦으며 비장한 모습으로 테이블 앞에 섰다. 테이블에 놓인 종이컵을 바라보던 사우들의 눈에서 이글이글 불이 타올랐다. "승리는 우리의 것!" 우렁찬 다짐과 함께 시작된 대결. 사우들은 어떻게 하면 높게 쌓을지 의견을 나누며

다섯시엔  
종이컵  
높이 쌓기  
대결

### #1

뛰니뛰니해도  
안전성이 최고지!



### #2

쌓기를 박기 위해  
마지막 종이컵을  
올려놓는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 #3

침착함과 안전성이  
승리의 포인트~



### #4

첫 대결의 승리를  
아이처럼 기뻐하는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





종이컵 빨리 쌓기 (개인전)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앗, 생각처럼 안되네~



훗 내가 이겼다!



승리의 세리머니가 이 정도는 돼야지~

종이컵을 조심조심 옮겼다. "뭐니뭐니해도 안 전성이 최고지!" 평소 업무를 할 때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 김진 세그먼트장의 말에 팀원들은 "역시 우리 부장님 답다"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이승민 세그먼트장은 김진 세그먼트장을 의식했는지 "안전도 좋지만, 목표는 높을수록 좋지. 최대한 높이 쌓아보자"며 팀원을 이끌었다.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종이컵을 아래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갔고,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는 거꾸로 쌓아보기도 하고 겹쳐 쌓아보기도 하며 두 팀은 저마다 개성을 담아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컵을 쌓아갔다. 시간은 어느덧 십여 초 밖에 남지 않았고,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가 조금 더 앞섰다.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명훈 대리가 "뽀기를 박자"며 마지막 종이컵을 올려놓자 종이컵 탑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고, 첫 번째 대결의 승리는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가 가져갔다.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다

두 번째 대결은 종이컵 '빨리' 쌓기 대결. 주어진 10개의 종이컵을 4개-3개-2개-1개 순으로 빨리 쌓는 사람이 승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미리 연습을 해보며 상대를 견제했다. 일대일 대결로 진행한 이번 대결은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가 빛나는 활약을 펼치며 연속 3승을 거두어 깔끔하게 승리를 거머쥐었고, 이내 팀원들은 하늘을 향해 환호하며 짜릿한 승리의 맛을 즐겼다. 첫 번째 대결과 두 번째 대결의 승리를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진 두 팀, 승리를 결정짓기 위해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 김진 세그먼트장과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이승민 세그먼트장이 대표로 나섰다. 평소에도 친한 동료이자 선의의 라이벌 관계인 두 사람이 펼칠 대결에 분위기는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 이 대결로 최종 승패가 결정되기에 두 사람은 손을

바르르 떨며 조심히 종이컵을 쌓아 올렸고, 각 팀의 응원전도 열띠게 펼쳐졌다. 결과는 간발의 차이로 김진 세그먼트장의 승리로 끝났고,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는 서로 부둥켜안으며 최종 승리를 마음껏 기뻐했다.

모처럼 협동심을 색다르게 경험하며 절대 무모하지 않은 대결을 펼친 두 팀. 경쟁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둘러 모여 치킨과 맥주를 함께 나눠 먹으며 여유를 찾았다. 사우들은 "오늘은 두 팀 모두 승리자였다"며 입을 모아 말하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이승민 세그먼트장은 "김진 세그먼트장에게 저서 아쉽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던 걸 새롭게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최선을 다해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지금처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며 더욱 완벽한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 힘쓸 두 팀. 오늘처럼 합심하여 함께 만들어갈 밝은 앞날을 기대해본다.

치맥 파티로 마무리~

경쟁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사우들은 둘러 모여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으며 오랜만에 여유를 찾았다.



아이고 한 개만 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역시 우리팀이 최고야~



승리의 기쁨은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에게 돌아갔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던 것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 mini interview

엔진 콤포넌트 세그먼트 김진 세그먼트장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모한 도전을 통해 두 팀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세플러 가족 여러분, 평소에 하고 싶었던 도전을 해보면서 신선한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 “나 다시 돌아갈래!” 요술 바이킹을 타고, 소년으로 돌아가다

벨트&체인드라이브 시스템 BU 영업

유난히 길고 더운 여름이 지나고  
반가운 가을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 또한 금방  
지나갈 생각에 벌써 아쉽다.  
벨트&체인드라이브 시스템 BU 영업은  
사무실을 떠나 찰나의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청풍명월의 분향인 제천을 찾았다.  
개구쟁이 학창시절로 돌아가  
수학여행의 기억을 떠올리며  
맘껏 뛰놀았던  
그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자.



## 다시 찾는 수학여행 그땐 그랬지 —

+ mini interview

정주호 과장  
벨트&체인드라이브 시스템 BU 영업

청풍랜드에서 박스윙을 타는  
팀원들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  
다. 줄에 매달려 사색이 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철없는  
아이의 순수함과 장난기 넘치는  
소년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팀이 당면할 도전과제가  
많이 있으나, 이정일 팀장님과 함께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고지를  
점령하는 그 날을 기대해봅니다.



### 수학여행의 설렘을 싣고 떠나다

국내 모든 자동차사 대상으로 자동차의 파워  
트레인 관련 핵심부품인 벨트드라이브와 체  
인드라이브 시스템의 영업 및 개발을 담당하  
고 있는 벨트&체인드라이브 시스템 BU 영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팀원들끼리 정기적인 야  
유회나 모임을 자주 가졌으나 최근 바빠진 업  
무 탓에 점점 친목과 단합의 기회가 줄었다고  
한다. “술만 마시는 화식(화식)이 아닌 진정으로 소  
통하고, 단합할 기회가 필요했다”는 이정일 팀  
장. 업무에 지친 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팀원들을 이끌고 공기 좋고, 물 맑은 충북 제  
천을 찾았다.

이번 수학여행의 드레스코드는 ‘복고’. 빨간색  
스카프, 선글라스, 청바지 등으로 한껏 멋을 낸  
서로의 모습을 보고 “촌스럽다”고 지적하며 까  
르르대던 팀원들. 오랜만에 함께 떠나는 여행  
이라 그런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다  
들 잠은 못 주무셨나요? 저는 잠이 안 오더라  
고요!” 입사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햇병  
아리 최수창 사원은 수학여행을 떠난다는 설  
렘에 잠을 설쳤으며 살짝 긴장한 모습을 보였  
다. “나도 설레던데? 약 30년 만에 떠나는 수학  
여행이라 긴장되더라”는 이정일 팀장의 너스  
레에 팀원들은 크게 웃었다. 벨트&체인드라이  
브 시스템 BU 영업의 유일한 흥일점이었던 신  
희정 대리가 참여하지 못해 남자끼리 떠나는

여행이 되고 말았지만, 팀원들은 제천에 도착  
하기도 전에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재잘재잘  
이야기꽃을 피웠다. 집에서 싸온 과자, 음료수  
등을 나눠 먹으며 옛 수학여행의 추억을 얘기  
하다 보니 어느덧 첫 번째 목적지인 의림지 파  
크랜드에 도착했다.

### 응답하라 1998, 철부지 소년으로 돌아가다

의림지 둘레길에 자리 잡은 의림지 파크랜드  
는 1998년에 개장한 놀이공원으로 마치 어릴  
적 찍은 빛바랜 사진 속이나 나올 것만 같은  
곳이었다. 원색의 페인트가 벗겨진 놀이기구  
를 보며 팀원들은 “아직도 이렇게 예스러운 놀

이동산이 있었냐”며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 호  
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렸  
다. 이내 놀이공원의 꽃이라는 스릴만점 바이  
킹 타기에 도전한 팀원들. 오랜만에 타보는 놀  
이기구라 바짝 긴장해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  
바이킹에 속도가 붙자 팀원들은 무서워하기는  
커녕 세상 행복한 미소로 함성까지 지르며 바  
이킹 타기를 즐겼다. 이정일 팀장은 두 손을  
하늘 위로 올리는 과감한 리액션을 선보이며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쳤고, 어느덧 팀원들  
도 “야호!”를 외치며 철부지였던 소년의 모습  
으로 돌아가 바이킹을 즐겼다.  
속이 땀 뚝뚝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업무 스트  
레스를 날려버린 팀원들은 바이킹에서 내리자

빛바랜 사진 속이나  
나올 듯한 곳에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다.



마자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팀원들은 긴장이 풀린 표정으로 “두 번은 못 타겠다”며 손사래를 쳤고, 흥겨운 마음으로 의림지 파크랜드를 뒤로 한 채 의림지로 발길을 돌렸다. 길을 건너 의림지 입구로 들어가니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키가 꽤 큰 나무들은 그늘을 마련해주었고, 드넓은 호수는 반짝반짝 청록색 빛을 냈다. “바람 참 시원하고 좋다”며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맞던 팀원들. “바이킹의 여파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 같다”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온몸으로 실컷 만끽했다.



“  
**잡아! 잡아야해!**  
 꼬리를 잡기 위해 너나 할 것없이  
 흠뻑뻑한 한탕 뒤집어 쓴 팀원들.  
 시원스럽게 웃는 웃음소리에서  
 그들의 소년시대를  
 살짝 엿볼 수 있었다.”

**우리만의 가을 운동회로 화합을 다지다**

“다들 아저씨처럼 왜 이러세요? 햇볕도 좋은데, 우리 게임 한판 할까요?” 그늘 아래 앉아 휴식을 취하던 팀원들 앞에 벨트&체인드라이브 시스템 BU 영업의 분위기 메이커라 불리는 김태철 대리가 나섰다. 가위바위보에 진 팀은 말이 되고, 이긴 팀은 말에 올라탔다. 무시무시한 속력으로 내달려 왕희성 대리 등에 힘차게 올라타 말의 형세를 무너뜨리려 하는 변지원 차장을 보고 이정일 팀장은 “살살하라”며 핀잔을 줬고, 오근식 부장은 “허리를 조심하라”며 팀원들을 살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어느덧 팀원들은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노래를 흥얼거리며



함찬 도움닫기, 혹여 떨어질까 꼭 잡은허리, 긴장감이 팽팽한 가위바위보! 벨트&체인드라이브 시스템 BU 영업만의 가을 운동회는 웃음으로 가득했다.

추억놀이 속으로 폭 빠져있고, 말뚝박기에 이어 꼬리잡기도 진행했다.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길게 늘어진 팀원들은 “시작!” 소리에 맞춰 서로 꼬리를 잡겠다고 방글방글 돌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한 여러 명의 팀원들이 한꺼번에 넘어지면서 게임은 허무하게 끝났다. 이후 팀원들은 잔디밭에 드러누워 너도나도 엄살을 피우며 근육통을 호소했고, 최수창 사원이 신입 사원답게 선배들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훈훈하게 게임을 마무리했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오감을 뒤흔들게 만드는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청풍랜드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청풍호 중심에 있는 청풍랜드는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팀원들은 자신해 일정한 높이까지 올라가 직접 줄을 당겨 추락하는 기구인 빅스윙에 몸을 맡겼다. “까악” 소리를 내며 떨어진 팀원들은 그네처럼 앞뒤로 반원을 그리며 하늘을 동동 떠다녔다. “어때, 이제 스트레스 좀 풀렸어?” 이정일 팀장은 팀원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고, 팀원들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네”라고 우렁차게 대답했다. 앞으로 팀원들은 오늘의 힘찬 목소리처럼 ‘2025년 매출액 2배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활기차게 나아갈 것이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이정일 팀장은 다시 한 번 지금까지 팀원들이 각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조력자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긴장도 잠시  
 텅~!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낸 팀원들은  
 청풍호를 마음껏 즐겼다.”



# 119 보다 빠른 응급처치! 자전거 사고, 당황하지 마세요

## 레저와 일상을 공유하는 '자전거' 안전하게 즐기기

자전거 이용 인구 1,200만 명 시대. 계절, 남녀노소 상관없이 일상 속의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자리 잡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즐기는 법 알고 계신가요?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넘나드는 만큼 각종 사건사고도 많은 자전거!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 자전거 낙상 사고 1위, 열상

피부가 찢어져 출혈을 동반하는 열상은 자전거 낙상 사고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전조등과 후미등 없이 야간주행을 할 때 큰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열상을 입은 경우엔 먼저 흙과 먼지를 털어내고,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덮어 지혈한 뒤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어 소독해 2차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한 열상에는 고인 물에 상처 부위를 담가 두거나, 입으로 상처 부위를 빨아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 햇볕 속 라이딩, 열사병을 조심하세요

무더위는 갔지만 높아진 하늘에 햇볕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장시간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일 경우, 열이 오르지만 땀이 흐르지 않는 경우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열사병의 핵심 대처는 체온을 낮추는 것! 스프레이나 젖은 천으로 젖은 상태를 유지하고 부채질로 열을 식힙니다. 하지만 의식이 혼미할 경우 물과 음료를 급히 복용시키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재빨리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빠격거리는 바퀴가 불러온 골절사고

정비하지 않은 자전거로 언덕을 넘다보면 체인,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체인과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내리막길에서 자주 일어날 뿐 아니라 골절과 같은 큰 부상을 부릅니다. 골절 시 가장 우선해야 할 대처방법은 골절 부위와 주변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목은 금물! 직접 부목을 대거나 혼자 처치하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일 경우 부위에 따라 골절된 뼈로 내상을 입을 수 있어요.

### 헬멧이 없다면 치아파절에 주의하세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은 열상, 염좌만큼 자주 일어납니다. 부러지거나 금이 간 치아의 경우 골든타임인 1시간 이내에 식염수, 우유 등에 담그거나 혀 밑에 넣어 보관한 상태로 치과를 방문하면 복원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치아가 빠져 출혈이 난다면 지혈과 소독이 필수입니다. 깨끗한 천을 물어 지혈하고 치아 뿌리를 피해 흐르는 물로 헹구면 세균감염을 막고, 잇몸에 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 For Life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의 열매가 아무지게 야물었습니다.  
정성어린 관심으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합니다.

24 · 아빠 어디가  
군산으로 떠나는 과거여행,  
아빠와 추억을 만나다

28 · 사랑의 세레나데  
내가 밝게 비춰줄게! 그댄 나와 함께 '꽃길'만 걸어요~

32 · 세플러 미식회  
불판 위에 구워내던 직장인의 애환, 그리고 고추장 돼지구이

36 · 행복 스케치  
세플러 가족들의 가을, 어느 멋진 날에 기억

38 ·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디오니소스가 재림하는 성대한 축제, 독일 옥토버페스트

40 · 같이의 가치  
'허그인'을 통해 본 공유경제 이야기

42 · Law school  
'옥외가격표시제' 바로 알고, 현명한 소비하기

# 군산으로 떠나는 과거여행, 아빠와 추억을 만나다

전주공장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호중 사원



근대역사의 중심도시,  
군산에 자리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진포해양테마공원을 찾은  
전주공장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호중 사원 가족.  
고향이기도 한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아이들과 함께  
느껴보고자 떠난  
시간여행을 따라가 보자.

다시 찾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이번에는 아빠와 함께가요!

‘역사는 미래가 된다’는 슬로건으로 과거 무 역항이자 해상물류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 산의 모습을 전국 최대의 근대화자원 규모 로 전시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찾은 김호 중 사원 가족. 사실 군산이 고향인 김호중 사 원은 이미 아이들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9살인 큰아 들 석현이를 제외하곤 둘째 하연이와 막내아 들 수현이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처음이 라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이 모두 어릴 때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온 적이 있어서 지루해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처음 온 것처럼 좋아하네요. 어려서 왔을 때 는 놀러왔던 추억을 기억 못 했지만, 올해는 아이들이 컸으니 아빠와 함께 왔던 군산근대 역사박물관을 기억해 주겠죠?”

김호중 사원 가족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으 로 들어가기 전 박물관 옆에 위치한 군산 세 관을 찾았다. 유럽의 건축양식과 일본의 건 축양식이 합쳐진 군산 세관은 국내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 하나로 군산이 아니면 보기 힘든 명소다. 군산 세관에 처음 와보는 석현이는 까치발로 요리조리 실내를 둘러보았다. 김호중 사원은 이곳을 시작으로 아이들과 군산의 근대역사를 차근차근 알아 나 갔다.

### 인력거를 타고 떠나는 시간여행

김호중 사원은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해주고자 인력거 뒷자석에 아이들을 나란히 태우고, 핸들을 잡았다. 인력거를 처음 보는 아이들은 뒷자석에 오르면서 동그란 눈에 호기심을 가득 담았다. “아빠, 우리 어디가?” 호기심이 많아 질문이 많았던 하연이의 질

문에 김호중 사원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간 다며 아이들을 들뜨게 했다. “빨리 가요, 빨 리!” 형과 누나의 손을 꼭 잡고 아빠를 재촉 하는 막내 수현이의 말에 김호중 사원은 힘 차게 인력거의 페달을 밟았다. 아이들이 군 산근대역사박물관의 주변 건물들을 찬찬히 둘러볼 수 있도록 많은 인파 사이에도 골목 을 누비던 김호중 사원. 그런 아빠의 배려 덕 분에 옛 건축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건축물 과 길거리를 꼼꼼하게 둘러볼 수 있었던 아 이들은 감탄사를 아끼지 않았다. “TV에서 봤 던 집들 같아요. 진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 이에요.”

인력거를 타고 한참을 달리며 주변 관광명 소를 돌아본 김호중 사원 가족은 군산근대 역사박물관 앞에 내렸다. 커플룩으로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과 김호중 사원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역사의 순간이 담긴 박물관으 로 향했다.

“아빠, 우리 어디가?”  
호기심이 많아 질문이 많았던  
하연이의 질문에  
김호중 사원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간다며  
아이들을 들뜨게 했다.  
“빨리 가요, 빨리!”  
형과 누나의 손을 꼭 잡고  
아빠를 재촉하는  
막내 수현이의 말에  
김호중 사원은 힘차게  
인력거의 페달을 밟았다.



### 군산의 역사를 느끼다

1930년 일제강점기 당시의 군산을 재현한 근대생활관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던 딸 하연이는 고무신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아빠 이거 봐요! 고무신이에요, 수현아 너도 이거 봐봐” 막내 수현이는 모든 것이 신기한지 누나 하연이가 쥐여준 고무신을 꼭꼭 누르며 감촉을 즐겼다. “애들이 여기 앉아봐, 옛날에는 교실이 이렇게 생겼었어.” 요즘 아이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딱딱한 의자에 앉은 석현이와 하연이는 신기한지 책상과 의자를 톡톡 두드렸다. 김호중 사원 가족은 교실을 벗어나 지게도 직접 짚어져 보고 전국 최대의 농민항쟁 옥구 농민 항일항쟁의 순간을 담은 벽화도 구경하며 역사의 순간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제 석현이가 좋아하는 헬기를 구경하러 가볼까?” 김호중 사원의 물음에 석현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 걷기 시작했다. 작년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는 석현이는

여태 떠났던 여행지 중에서 진포해양테마공원을 최고로 꼽았다. “주말부부다 보니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줘서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그중에서도 석현이는 여기가 가장 좋네요. 석현이는 헬기를 좋아하거든요.” 최무선 장군의 진포 대첩을 기려 만들어진 진포해양테마공원에는 육·해·공군의 다양한 옛 군장비를 전시하고 직접 내부에 들어갈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엄마 없이 아빠와 함께하는 첫 여행에 낯설기도 하건만 씩씩하게 헬기와 전차에 오르는 아이들의 모습에 김호중 사원은 미소를 아끼지 않았다. “엄마 없이 아이들하고만 처음 여행을 떠났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새록새록 보여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일까?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김호중 사원. 아이들이 불러주는 ‘아빠’라는 한마디에 행복을 느낀다는 그의 말 속에서 아이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이 가득 묻어났다.



#### + Tip

#### 군산 근대항 스탬프투어

군산 근대항 인근 관광명소에 위치한 스탬프 8곳을 모으는 군산 근대항 스탬프투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는 군산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기 좋은 코스로 짜여 있어 별도의 계획 없이 손쉽게 군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8곳에 스탬프를 모두 모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으로 돌아와 확인을 받으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방문한다면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 063.454.7870 주소 :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0(장미동 1-67)



“퇴근하고 오랜만에 군산에 오면 애들이 ‘아빠~’하고 달려올 때 정말 힘이 나고 행복해요.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쁘게 바쁘게  
 그대 뒤를  
 나와 함께  
 '꽃길'만  
 걸어요

서울사무소  
 커뮤니케이션&마케팅  
 이성규  
 대리



사람의 인연에는  
 '우연'이 없다고 한다.  
 친구로 만나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기까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 모르는  
 이성규 대리와 지혜 씨가  
 결혼을 앞두고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미리 둘만의 백년가약을 맺었다.  
 깨가 쏟아지는 고소한  
 두 사람의 사랑 길을  
 따라 걸어본다.



**친구에서 연인이 되기까지**

“날씨 참 좋다~” 색색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남산골한옥마을에 들어선 이성규 대리와 지혜 씨. 준비하게 늘어난 기와들 사이로 사뿐사뿐 걸어오는 두 사람의 자태는 마치 사극드라마의 주인공 같았다. 꽃에 물든 오색한복과 청사초롱, 분홍빛 꽃신에 고즈넉한 분위기가까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이성규 대리가 여자친구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이젠 나와 함께 꽃길만 걸어요” 지혜 씨 발에 꼭 맞는 꽃신을 신겨주면서 수줍게 마음을 전한 이성규 대리. 하늘 높이 환하게 빛나는 태양은 마치 무대 위의 핀 조명처럼, 오로지 두 사람만 비추고 있었다. “말이 잘 통하는 편한 친구, 웃는 모습이 예뻐던 친구.” 이성규 대리와 지혜 씨는 십여년 전 서로의 모습을 똑같이 기억했다.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고 또 고민을 나누면서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 서로 간의 연락이 뜸해지면서 인연은 추억이 되는 듯했다. 몇해가 훌쩍 지난 뒤 우연히 SNS로 연락이 되었던 건 어쩌면 두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꼭 마주잡은 두 손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행을 좋아해 말이 잘 통했던 친구였기에 오랜만의 연락에도 ‘잘 지냈냐’는 일반적인 대화보단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지혜 씨에게 제주도 월정리에 한 카

페를 추천받아 제주도 여행을 떠난 이성규 대리. “지혜에게 ‘덕분에 즐겁게 여행했다’고 작은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카페에 남겨뒀어요.” 그 후에 지혜 씨가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놀러 왔다가 이 카페에서 이성규 대리의 편지를 읽었던 것. 이 작은 에피소드는 서로에게 감동이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둘만의 버킷리스트**

“목적지에 달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말이 있듯이 연인이 되면서 두 사람에게 여행의 의미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언제나 그 과정에서 함께였고, 행여나 혼자 여행길에 오르게 되면 여행지에서 서로에게 꼭 편지를 보내곤 한다. 특별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여행지에서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서도 둘만의 추억을 기록해보자!” 마을을 거닐던 이성규 대리가 지혜 씨의 손을 끌고 한옥 쪽마루 한 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서로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하트를 만들고 나서 ‘우리 결혼해요’ 메시지를 적고 나니 둘만의 사랑스러운 청첩장이 완성됐다. “이제 남산골한옥마을을 올 때마다 결혼을 기록한,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오늘 이곳이 특별한 여행지가 되었다며 어린아이처럼 들떠있는 두 사람의 얼굴에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혜 씨는 글, 메모가 또 다른 힘이 있다고 믿었다.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 가보고 싶은 곳 등 작은 꼬적임에서 시작된 메모는 어느덧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로 완성되었다. “어느샌가 제가 적어둔 바람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었어요. 꿈꾸던 이상형을 만나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두 사람의 버킷리스트가 되어 함께 바라는 목록들을 추가하고 있다. 그 중 하나였던 스카이다이빙. 이성규 대리는 지난해 프라하 여행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기뻐하는 지혜 씨의 모습을 보며 이번 신혼여행에서도 꼭 하고 싶은 게 있단다. 프랑스 파리 킬리 정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아직은 소소하고 작은 바람들이지만 하나씩 이뤄나가다 보면 분명 두 사람이 원하는 멋진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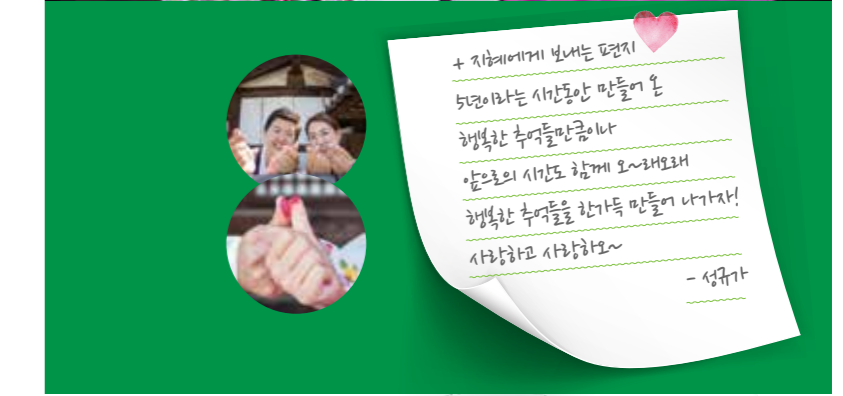
“  
 둘만의 버킷리스트,  
 아직은 소소하고  
 작은 바람들이지만  
 하나씩 이뤄나가다 보면  
 분명 두 사람이 원하는  
 멋진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다.  
 ”



### 함께 걸어갈 길, 서로의 등불이 되어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성규 대리.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등 직함이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지혜 씨. 5년이 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는 많이도 닮아있었다. 이런 모습들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두 사람은 설레는 신혼생활을 기다리고 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하는 만큼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함께 누비며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둘만의 추억 조각과도 같은 여행지 마그네틱. 이미 집 안에 한 벽을 마그네틱으로 다 메워가 지만서도 새로운 추억의 조각을 차곡차곡 모으고 싶다는 이틀이다.

한참이나 남산골한옥마을을 둘러보며 함께 나아가 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운 두 사람. 이성규 대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행여나 지혜 씨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절대 손을 놓지 않았다. 어쩌면 앞으로 살아가 면서 갑작스럽게 힘든 일이 두 사람을 찾아올 지도 모른다. 그때마다 지금처럼, 서로를 의지 하며 마주잡은 두 손을 더 꼭 잡는다면 어떤 일 일지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젠 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와요. 사랑 합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어떤 투박한 고백 보다도 미소에 담긴 이성규 대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지혜 씨 입가에도 미소가 맺혔다. 때론 친구처럼 재밌게, 때론 연인처럼 로맨틱 하게, 때론 가족처럼 편안하게 앞날을 그려나 갈 이성규 대리 커플. 어느덧 태양은 저 멀리 남산 뒤로 몸을 숨겼지만, 서로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비춰주듯 두 사람 앞에 놓인 길은 환하게 빛났다.



### + Tip. 남산골한옥마을

남산골한옥마을은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재조명하기 위해 옛 정취를 되살려 서울의 사대가부터 일반 평민의 집에 이르는 한옥 다섯 채를 이전, 복원한 곳이다. 특히 마을 내에서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혼례체험, 한복 입기, 한글 쓰기, 한지 접기, 전통놀이, 다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남산골한옥마을의 길을 거닐면 옛 시대에 머문 듯, 오감으로 예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 02,2261,0500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4길 28  
 홈페이지 : www.hanokmaeul.or.kr

세플러코리아 사우님들!  
 연인을 감동하게 할 프로포즈 이벤트를 펼칠 기회를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사우님들은 엽서 또는 LEESGY@schaeffler.com 메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불판 위에 구워내던 직장인의 애환

그리고

## 고추장 돼지구이



###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권재홍 팀장과 동그랑땡 이야기

“광장시장에 동그랑땡 먹으러 갑시다.”  
이번 취재에 앞서 권재홍 팀장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동그랑땡,  
전의 일종으로 동그란 형태로 부쳐 먹는,  
그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광장시장에서  
만나게 된 것은 익히 알던 그 동그랑땡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을지로 시대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 팀의 회식은 이곳이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푸짐하게 식사 겸 술잔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 맛의 천국 광장시장에서 만난 어른들의 아지트

종로5가 광장시장에 들어서 시끌벅적한 시장길을 따라 걸으면, 유명한 마약 김밥 집을 지나 반대쪽으로  
이름난 순회네도 지나면 광장시장 오거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빨간 간판의 '오라이 동그랑땡'  
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오라이 동그랑땡'집의 정식명칭은 '오라이 등심 동그랑땡 꿈장어 원조  
참숯 돼지 고추장 양념구이'이다. 이름부터 오묘한 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여러 개의 테이블 자리마다 가  
운데 불판이 자리 잡고 있는 영락없는 고깃집이다.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인 권재홍 팀장이 가게로 들어서는데 여느 때처럼 혼자서 아니었다. 아무리 혼밥  
과 혼술이 유행하는 요즈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기에 팀원들과  
함께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자리를 잡고 앉으니 여느 곳처럼 밑반찬이 나오고 별경게 익  
은 참숯불과 불판이 자리를 잡았다. 곧이어 나오는 '동그랑땡'은 놀랍게도 동그랗게 말려있는 돼지고기  
목살에 고추장 양념이 더해진 구이용 고기였다.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처럼 고기를 불판에 올리니 매캐  
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더욱 익숙한 자태로 작은 회식 자리가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 동그랑땡은 거들뿐, 사람 사는 이야기 불판 위로 피어오르다

동그랑땡이 맛있게 익어갈 때쯤 권재홍 팀장이 불쑥 테이블 밑에서 꺼내 든 것은 광장시장의 명물인  
마약 김밥이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곳을 찾을 때면 늘 오징어에 땅콩처럼 동그랑땡  
에 마약 김밥을 곁들였고, 함께 먹는 그 맛이 일품이라 했다. 시장기를 다스리고 나니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늘 그렇듯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술잔처럼 오고 갔다.

한 자리에서 30여 년 그 맛을 이어온 오라이 동그랑땡과 마약 김밥처럼, 권재홍 팀장 또한 입사 후  
23년간 그것도 현재의 부서에서만 2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왔다. 회사가 을지로입구에 자리하던 시  
절 그는 참 열심히도 뛰어나던 때에 선배들과 함께 크고 작은 회식 자리로 하루를 마무리했고, 그  
러던 차에 알게 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 했다. 을지로 시대에 추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같  
은 건물의 그룹사 내에서 통근 버스를 운행했었는데, 그 버스 안에서 운명처럼 지금의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 5년간 아무런 연고도 없던 창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고, 사택에 살면서 직장 동료들의 도움 속에서 그나마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했  
던 시절을 지나기도 했었다. 서울로 복귀 후 을지로가 아닌 광화문으로 출근하면서도 늘 팀 회식만  
은 여전히 이곳 광장시장, 그중에서도 오라이 동그랑땡 집을 자주 찾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렇게 또다시 오래전처럼 불판 위에 동그랑땡이 익어갈 즈음, 회사 이야기며 아이들 커가는 이야기  
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불판 위의 고기처럼 올려졌다가 적당히 익으면 사라졌다.

“을지로 시대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 팀의 회식은 이곳이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푸  
짐하게 식사 겸 술잔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아무리 혼밥과 혼술이 유행하는  
요즈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기에  
팀원들과 함께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오라이 등심 동그랑땡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2길 23-5  
02.2279.8449

### 서울 그 거대한 도시 속 맛의 메카, 광장시장

광고와 장교의 이름 한 자씩을 따 1905년 한성부에 등록된 국내 최초 상설시장인 광장시장은 다양한 먹을거리도 가득하다. 비싼 음식은 없지만 맛있는 음식이 가게를 나와 좌판에 널렸다. 광장시장 남3로 근처에는 일명 '마약 김밥'집이 있다. 작은 가게지만 광장시장에서 가장 유명하다. 보통 김밥보다 작아서 꼬마 김밥이라 부르는 마약 김밥은 한 번 맛보면 먹는 것을 멈추기 힘들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광장시장 안으로 들어서 조금 걷다 보면 빈대떡의 고소한 냄새가 길 가는 사람을 잡는다. 시장 양옆으로 들어선 빈대떡 가게와 통로 가운데 노상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막걸리와 함께 기름기 가득한 고소한 빈대떡을 먹고 마신다. 유명한 외국 배우가 광장시장에서 빈대떡에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려 유명세를 타서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자릴 잡았다. 빈대떡 골목 끝에 광장시장 중심인 오거리가 있다. 사방으로 뻗은 길을 따라 순대, 비빔밥, 대구탕, 김밥, 고추장 목살집이 겹겹이 모여 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바로 '오라이 등심 동그랑땡' 집이다.



### 삼겹살에 가려진 돼지고기의 다양한 맛

어느 틈엔가 돼지고기라 하면 삼겹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외국에서도 '코리안 바비큐'라고 칭하며 삼겹살구이가 인기몰이 일만큼 돼지고기 요리의 국가대표이자 선봉장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정작 삼겹살이 우리들의 외식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것은 80년대 초반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60년대 외국의 돼지 품종을 들여와 개량하면서 돼지 농가가 늘어나게 되어 70년대 돼지고기의 공급이 원활해졌고, 80년대 이르러 외식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구워 먹기에 좋은 삼겹살이라는 부위가 식당에서 주요 메뉴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돼지는 하나 버릴 것 없는 귀한 식재료로서 대접을 받았다. 고기는 물론이거니와 머리에서부터 내장, 발, 피와 뼈에 이르기까지 버리는 것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주로 삶아 먹을 수육 형태로 먹던 것이 연탄과 가스의 보급으로 인해 구워서 먹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구워 먹기 알맞은 삼겹살 부위는 점점 소비가 늘어나고 구워 먹을 때 질기거나, 딱딱하거나, 돼지 특유의 구린내가 나거나 하는 다양한 부위들은 각자의 살길을 찾아야만 했다. 오라이 등심 동그랑땡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되었던 것인데, 구워 먹을 때 삼겹살에 비해 딱딱한 감이 있던 목살을 잘 숙성 시키고, 감칠맛이 나는 고추장 양념을 더 해 숯불에 구우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동그랑땡  
고추장  
돼지  
목살구이

돼지고기 목살을 동그랗게 말아 냉동시킨 후 8mm 두께로 썰어 냉장에서 숙성시킨 후 고추장 양념을 발라 숯불에 구워 먹는 독특한 조리법의 돼지고기구이

### 오라이? 동그랑땡? 낯설과 익숙함 사이

종로 5가에 자리하고 있는 오라이 동그랑땡 집의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은 대부분 그냥 부침개의 한 종류인 동그랑땡을 파는 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고기를 파는 음식점이다. 동그랑땡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단순하게도 불판 위에서 맛있게 구워지는 돼지고기의 모양이 그저 동그랗기 때문이라 한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돼지목살에 고추장을 더한 이 집의 양념은 고추장에다 파와 양파, 생강 등을 갈아 고춧가루와 물엿으로 맛을 내서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해서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또한, 숯불로 구워서 담백하면서도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없다. 30년 이상 변함없는 맛에 찾아오는 단골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기도 하다.

그 옛날 버스 차장이 힘차게 외치던 All right의 일본식 발음인 '오라이'를 떠올리게 하는 '오라이'라는 상호는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손님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오시라'는 뜻이라고 한다.



### 불판 앞에 모여드는 사람 사는 이야기

아파트에서 주로 살아가는 요즘, 집에서 고기를 굽는 일은 여러모로 쉽지 않다. 그래서 불판에 다 고기를 구워먹는 일은 늘 외식의 형태가 되기 쉽다. 꼭 고깃집이 아니라더라도 여럿이 야외로 놀러 가는 자리에 빠지면 섭섭한 것이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일이다. 다른 요리에 비해 준비 과정이 복잡하지 않기에 그저 쌈을 싸 먹을 푸성귀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히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 낸다. 여기에 숨어 있는 룰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럿이 함께한다는 점이다. 남다른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불판 앞에 혼자 앉아 먹는 이는 드물다. 함께 자리한 사람 중에 가장 고기 굽기에 능숙한 사람이 집계를 들고 총대를 메면, 나머지는 체면치레 없이 쌈을 사서 아무지게 먹는 모습이야말로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올바른 자세다.

고기가 익는 동안 서로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마칠 즈음이면 같은 냄새가 옷에 배는 돈독한 사이가 되어 버리는, 고기를 굽는 불판 앞은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2세기형 사랑방일지도 모른다.



# 세플러 가족들의 가을, 어느 멋진 날에 기억

〈임직원 자녀 그림 콘테스트〉 장려상과 이외 작품



장려상

지난 불호와 여름호에서 소개한 최우수상과 우수상 작품에 이어 이번 가을호에는 장려상 세 작품과 아쉽게도 수상은 놓쳤지만, 자신만의 색으로 가을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을 공개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임직원 가족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플러 가족마다 어떤 가을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 나와 할아버지의 남산타워



서울사무소 커뮤니케이션&마케팅 박영곤 선임매니저 자녀 '박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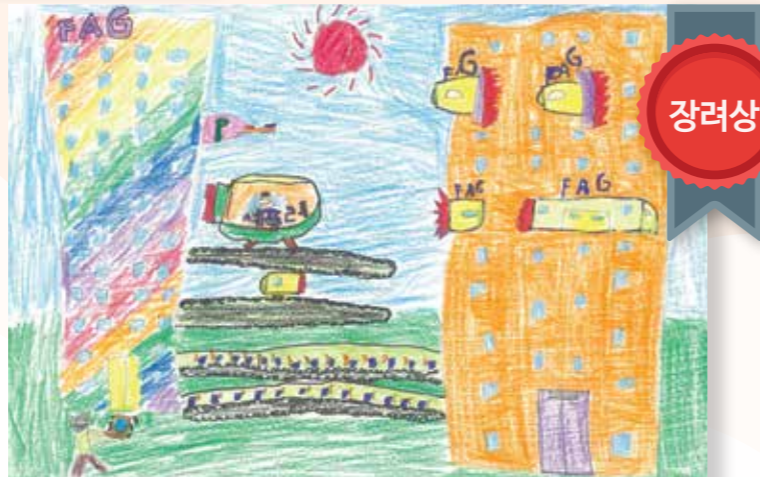
일곱 살 때 처음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남산타워를 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열두 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와 다시 방문했었죠. 단풍 구경도 실컷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할아버지와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어요. 남산타워는 할아버지와 나의 행복한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장소랍니다.

## 미래의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 산업기계 남부 직남 영업 박정인 부장 자녀 '박휘웅'

아빠 회사가 최고의 회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린 세플러코리아의 미래 모습입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바로 마트로 배달이 되기도 하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운송을 하고 있어요~



장려상

## 내 꿈은 축구선수

서울사무소 산업기계 해외 영업 이선종 매니저 자녀 '이현준'

슈퍼망궁1, 슈퍼망궁2, 클레오파트라, 라면머리, 안경잡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월요일마다 축구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슈퍼망궁2'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른이 되면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장려상



## 수상작 외 작품



못 말리는 우리가족

서울사무소 커뮤니케이션&마케팅 박영곤 선임매니저 자녀 '박서우'

그림 대회에 참여했던 우리가족은 경품행사에 눈이 팔려 그림을 엉망으로 그려 제출했었죠. 그때 기억만 하면 웃음이 나와요~

- 최우수상**  
창원공장 선삭 세그먼트 배종호 사원 자녀 '배현준'
- 우수상**  
전주물류센터 이재선 사원 자녀 '이수원'  
전략기획 김형덕 부장 자녀 '김태호'

- 장려상**  
커뮤니케이션&마케팅 박영곤 선임매니저 자녀 '박지우'  
산업기계 남부 직남 영업 박정인 부장 자녀 '박휘웅'  
산업기계 해외 영업 이선종 매니저 자녀 '이현준'



아빠와 갔던 동물원

서울사무소 사업관리 전일선 부장 자녀 '전지승'

초등학교 때 아빠와 갔던 동물원의 추억을 그림으로 그렸었어요. 현재 중학생인 저는 이 그림을 보며 해맑던 나와 동물원의 냄새,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생생히 떠오릅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

창원공장 선삭 세그먼트 강효진 세그먼트장 자녀 '강민서'

내가 꿈꾸는 세상은 자연 보호를 해 살기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깨끗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방과 후 자유시간

전주공장 볼베어링 세그먼트 서병민 사원 자녀 '서민철'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친구들과이랑 놀이터에서 놀 때가 가장 행복해요~

달리러 킥보드



서울사무소 Global Technology Service 김성만 차장 자녀 '김서울'

친구 채은이와 킥보드를 타고 달리며 시원한 바람을 실컷 느껴봤습니다. 즐거운 하루였어요!





수많은 규범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무의식의 이완은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시도가 된다. 술도 일상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 유효한 역할을 한다. 적시를 노려 유익하게 활용한다면 삶은 좀 더 유쾌해진다. 세계 10대 축제 중 하나라는 독일 뮌헨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의 계절이 다가왔다.



**맥주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축제장은 낮부터 북적인다. 독일을 대표하는 피자 양조 브랜드인 호프브로이, 뢰벤브로이 등 내로라하는 현지의 맥주 공급처들이 축구장 크기에 버금갈 만한 거대한 임시 막사를 쳐놓고 애주가들을 맞이한다. 막사의 한쪽에서는 솜씨 좋은 악단이 감성을 자극하는 악곡들을 연주한다. 이른바 밀당이다. 감각적인 선곡과 연주는 성공적인 매출을 보장하는 방아쇠다. 축제를 겨냥해 설치한 놀이기구들이며, 인형 따위를 상품으로 내건 야시장의 유흥거리가 열기를 부채질한다. 축제장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소시지 매점들도 그 특유의 향미로 축제객을 유혹한다. 평시에는 좌석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독일인들은 옥토버페스트에서는 좌석 위로 올라서서 건배를 외친다. 저녁이 되면 좌석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이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축제객들이 좌석 위에 올라서서 쾌락을 합창한다.



O k t o  
b e r



f e s t

**+ Tip. 국내에서 옥토버페스트를 즐기는 법**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 위치한 독일마을은 매년 10월이면 맥주축제인 옥토버페스트를 개최한다. 다양한 볼거리와 독일 맥주, 독일 소시지 등 독일 음식위주로 먹거리를 제공해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의 축제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다.

장소 : 경상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 일원  
문의 : 055.860.8601



**디오니소스는 왜**

여행을 통해 삶을 숙성시키고자 하는 이에게는 옥토버페스트가 보여 주는 풍경을 좀 더 깊이 음미하길 권한다. 아무 생각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다가는 공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와 오래도록 동거한 술은 삶의 다채로운 국면들을 투영해 주는 아주 좋은 인생살이의 교보재다. 이보다 좋은 화두도, 실전 도구도 드물다. 수많은 철학자가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디오니소스를 거론한다. 맥주를 향해 달려온 세계인들이 바로 코앞에서 형형색색의 풍경을 펼쳐 보일 터이니 술이라는 치명적인 급류에 휩쓸려 가는 거대한 축제객의 물결 속에서 사색도 하고, 그러다가 따분해지면 세계 최고의 맥주를 향해 온몸을 던지는 일거양득의 즐거움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 술과 인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했다면 낯선 축제객들 사이를 훨씬 쉽게 틈입할 수 있을 것이다.

**맥주의 격, 경험의 격**

모름지기 문화에는 격이 있는 법이고, 맥주의 풍미에도 격이 있는 법이다. 벨기에 맥주, 체코 맥주와 더불어 유럽의 3대 맥주 중 하나인 독일 맥주는 세계 각지에서 달려온 여행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이 된다. 세계 각지에서 독일 맥주를 접할 수 있지만 본고장에서 마시는 맥주는 그 맛이 다르다. 경험의 격 역시 다르다. 2~3배 이상 치솟는 숙박비를 감당해야 하지만 훗날의 여운을 고려한다면 옥토버페스트는 충분히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명성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옥토버페스트의 형식을 본뜬 행사들이 호텔, 백화점 등에서 개최된다. 무주, 대구 등에서 옥토버페스트를 모티브로 한 지방 축제도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독일 현지를 찾을 여유가 없는 이들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참여해 술의 미학과 풍미를 즐기길 바란다.

# #01

직접 만든 작품, 발로 뚫은 사진을 알리고픈 마음은 굴뚝같지만 전문 대관시설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염두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인적도 없는 곳에 무작정 전시할 수도 없는 노릇.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올 전시공간은 없을까?

##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스토어 셰어링

‘허그인’을 통해 본 공유경제 이야기

# #02

점점 높아만 가는 임대료와 덩그러니 놓인 빈 공간 때문에 오늘도 한숨만 늘어간다. 인테리어로 채우기에는 넓고, 제품을 전시하기에는 좁은 공간을 활용해 임대료 비용은 나누고 공간의 하전함은 채울 방법을 알고 싶다. 공간을 나눠 비용은 덜고, 다양한 브랜드로 손님의 흥미는 자극하는 공유경제 서비스, 스토어 셰어링(Store Sharing)을 알아보자.

### 스토어 셰어링(Store Sharing)을 아시나요?

흔히들 무언가를 나누고 공유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어떤 물건 혹은 서비스를 공유해도 되는지에 대한 막막한 생각만이 머리를 맴돈다. 하지만 스토어 셰어링이 추구하는 나눔에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다.

스토어 셰어링(Store Sharing)은 이름처럼 매장을 공유하는 것이다. 기존의 공간에 일부 공간을 활용, 재창조하여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비용은 낮추고 활용도는 높이는 스토어 셰어링은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다.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어떤 브랜드가 입점하는지에 따라 스토어 셰어링은

다양한 형태를 띤다. 전시공간이 될 수도 있고, 체험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서로가 내어줄 수 있는 공간만큼, 소개하고 싶은 모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토어 셰어링은 하고자 하는 욕심만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통화한 통으로 약속을 잡고 방문해 자신의 공간을 마음껏 꾸미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스토어 셰어링을 알고자 ‘허그인’이 나섰다.

### 나눔의 즐거움이 시작되는 ‘허그인’

나눔의 공간이자 카페인 허그인은 나눔을 즐기는 문화를 알리고자 스토어 셰어링 사업에 뛰어들었다. 가정집을 개조해 다양한 공간으로 분리된 허그인은 각종 모임을 주최할 수



‘나눔은 혼자가 아닌 나눌 때 비로소 기쁨을 더할 수 있다’



허그인과 희망키움샵이 나눔의 즐거움을 알리는 공간

있는 대관 서비스와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한 전시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허그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이 눈에 띈다. 갤러리처럼 사용되는 벽면은 그림이나 사진들의 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벽에는 별다른 인테리어 없이 전시용 갤러리 와이어, 개별 조명만이 놓여 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공간마다 개별 문과 조명으로 분리해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허그인의 공간은 전시, 대관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현재는 지하와 2층에는 나눔 기업인 ‘바라볼 사진관’이 입점해 있어 촬영 스튜디오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허그인이 지향하는 스토어 셰어링은 일반적인 공간 대여 사업이 제공하는 대관, 전시 서비스와 차별화되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나눔’과 ‘응원’에 있다. 허그인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회사나 단체에 기부 혹은 대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과정에 있는 모임과 행사의 주최를 도우며 ‘응원’한다. 나눔의 문화를 대관, 전시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 스토어 셰어링의 본질이자 허그인의 목표이다.

### 그냥, 나누고 싶어 나눕니다

허그인의 설립자 신성국 대표가 스토어 셰어링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대학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다른 이들을 위한 친절과 봉사가 어디까지 전염될 수 있는지 관찰하는 프로젝트가 점차 커져 칭찬 릴레이, 모금활동을 넘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열기에 이르렀다. 이 경험을 토대로 공유의 가치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장소, 허그인을 만들었다. 그는 나눔의 즐거움을 알리고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나눔인에게도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한 응원의 방법은 간단하다. 카페에서 ‘허그인터치’ 메뉴를 주문하면 이전에 주문했던 사람의 메뉴와 마음의 편지를 함께 제공하는 것. 그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유하고 또 다른 마음을 전달하는 릴레이를 커피 한 잔으로 만들었다. 또한 뮤지션들이 음악을 나누고 관객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제공하는 ‘별별별 콘서트’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면서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나눔은 혼자가 아닌 나눌 때 비로소 기쁨을 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신 대표. 그의 이러한 마음 이야기로 스토어 셰어링의 정신이 아닐까?

### 카페 허그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83  
문의 : 02.322.6489



### 모임대관

전체대관(1, 2층)	최대 100인	대지회원	별도문의
Hug홀	30~40인 (최대 50인)	파티, 공연, 행사, 웨딩, 촬영 등	시간당 10만 원(부가세별도)
U&I룸	6~8인 (최소 6인)	스터디, 소모임 등	기본 3시간 1인 7,000원
Gift룸	15~20인 (최소 15인)	회의, 워크숍, 파티 등	추가 1시간 1인 2,000원
Imagine룸	10~12인 (최소 10인)	소모임, 세미나, 워크숍 등	*음료서비스가 제공됩니다.
Neighborhood룸	바라볼사진관 사무실		

\* 정원, 테라스 공간대관 및 프로젝트, 스크린, 음향장비 대여는 별도문의

### 전시대관

새로운 전시회가 2주 마다 펼쳐지고 있어,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 : 기본 2주 20만 원(부가세별도)  
분야 : 그림, 사진,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분야 가능

# 소비자가 알 권리 '옥외가격표시제' 바로 알고, 현명한 소비하기

2014년,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생활 물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식당, 미용실 등의 외부에 음식이나 서비스 가격을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했다. 최근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도 수업료 부착을 의무화하면서 범위가 확대되었다. 오랜 시행에도 꿈수 부리기로 잘 지켜지지 않는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가 바로 알고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자.



사례 ①

직장인 A 씨는 가을을 맞아 분위기도 바꿀 겸, 피마하러 미용실을 찾았다. 외부에 적힌 저렴한 가격에 망설임 없이 들어간 A 씨 미용사는 가장 추가에 트리트먼트 시술 등을 권하면서 밖에 게시된 금액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해결** 현행법상 외부에 노출되는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 가치세와 봉사료, 필수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A 씨는 소비자의 권리로 미용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

B 씨는 초등학교가 되는 아들의 영어학원을 알아보고 있다. 저렴한 수강료를 보고 들어간 학원에서는 수업의 질이 높다는 이유로 수강료가 높은 다른 강의를 권한다. 외부에 수강료가 적혀있지 않은 학원이 있는가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수강료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해결** 모두 관련 규정 위반입니다. 지난 7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의 범위가 확대돼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렇기에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와 마찬가지로 최종 소비자 가격을 외부에 표시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교육기관은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옥외가격표시제'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 '옥외'의 인정범위는?

- 소비자가 영입소를 들어가기 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 의거, 이동이 가능한 형태의 광고물(배너, 현수막 등)을 활용한 가격 표시는 처벌 대상에 해당
-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업소의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

### 모든 업소에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나?

- 일반음식점은 150㎡ 이상의 규모일 경우 의무적으로 5가지 이상 대표음식의 가격을 외부에 표시
- 이·미용실은 66㎡ 이상의 규모일 경우 2가지 이상 서비스 가격을 게시해야함

### 미이행 시 행정조치는?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대신하여 과징금 징수 가능)
- 교육기관일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벌금과 벌점 부과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며 31점 이상 '교습정지', 66점 이상 '등록말소' 처분)

# To Communicate



한 잎, 두 잎  
고객의 만족을 위한 고민들이 물들고 쌓여  
아름다운 가을을 완성합니다.

44 • 새로운 시선  
세플리코리아를 풍성한 결실과 수확으로 이끄는 16명의 상상한 열매를 소개합니다!

47 • 따뜻한 시선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인라인스케이트 체험

50 • 특집  
미래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사고, FSITA 2016을 가다

54 • Schaeffler FOCUS

57 • Schaeffler NEWS

61 • Schaeffler Hotline

# 세플러코리아를 풍성한 결실과 수확으로 이끌 16명의 싱싱한 열매를 소개합니다!

세플러코리아의 풍성한 결실과 수확을 위해 멋진 활약을 펼칠 16명의 신입사원을 소개한다. 이들이 말하는 '나는 000한 세플러인이 되겠다'는 굳센 포부와 다짐을 들어본다.

## 서울



**이겨레 \_ 클러치 시스템 BU 영업**  
카리스마 넘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인자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탁월한 실력을 쌓아 일도 잘하고, 인품도 좋은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 안산



**남궁재웅 \_ 엔진 시스템 연구소**  
스마트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는 연구로 세플러코리아의 더 큰 도약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세플러인이 되고 싶습니다.



**최석렬 \_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 BU 엔지니어링**  
사랑받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노력하여 업무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사랑받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최수창 \_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영업**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의 가족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앞으로 지금 같은 초심을 잃지 않고 세플러코리아에 멋진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연구소



**김진민 \_ 사시&액세서리 드라이브 BU 엔지니어링**  
매혹적인 세플러인이 되겠다!  
사람, 업무, 일상 모두 성실히 바른 자세로 임하여 주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김현진 \_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백조 같은 세플러인이 되겠다!  
백조는 물에 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물 위에서는 어떤 새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 또한 백조처럼 노력해서 멋진 현대 여성이 되겠습니다.



**손용호 \_ 전자기 개발**  
쓸모있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라는 문장을 명심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변명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_ 전자기 개발**  
성실하며 늘 깨어있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의 전자기 개발팀의 일원으로서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영진 \_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빈티 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에서 업무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에서 '저의 빈자리가 티'나는 일을 잘하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최다은 \_ 전자기 개발**  
스페셜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 Special machine팀의 일원으로서 대체 불가능하고 특별한 Specialist가 되겠습니다.



**황정준 \_ 사시&액세서리 드라이브 BU 엔지니어링**  
유리 소주잔 같은 세플러인이 되겠다!  
유리 소주잔처럼 투명해서 속이 훤히 보이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주를 마시기 위해 꼭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친숙한 유리 소주잔 같은 사원이 되겠습니다.



창원



**성종민 \_ 공정기술 창원**  
스마트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세플러코리아에 맞춰 저 역시 더욱  
발전하여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나기영 \_ 차공구서비스 전주**  
강인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짧지만 굵었던 연수 기간 동안 제 자신을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궈놓았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발전해  
세플러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송주석 \_ 공정기술 전주**  
파이팅 넘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동료를 대할 때나 업무를 대할 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고 언제나  
파이팅이 넘치는 세플러인이 될 것입니다.



**이혜원 \_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앞으로 나아가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Keep Going'이라는 저의 생활신조처럼  
세플러 안에서도 정체되지 않고 항상  
나아가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정 환 \_ 품질보증 전주**  
두 개의 심장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세플러인이 되겠다!  
10년, 20년 후에도 늘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프로 엔지니어로서 세플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인라인스케이트 체험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이 함께한 인라인스케이트 봉사 현장

전동휠과 드론 등 화려한 놀잇감에도 불구하고  
인라인스케이트가 주는 추억과 감성은 따라올 수 없다.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분주하게 놀리던  
여느 주말과 다르게 매끄러운 실내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달리는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과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함께한 현장으로 찾아가 보자.

## 실내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만나요

9월 24일, 따가운 가을볕을 피해 세플러코리아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과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의 실내인라인스케이트장에 모였다. 아이들과 봉사단은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인라인스케이트를 고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1년이 넘는 시  
간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며 아이들  
과 관계를 쌓아온 봉사단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익숙하게 인라  
인스케이트 장비를 챙겼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발사이즈에 따라 발에 꼭 맞는 인라인스케이  
트를 찾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끈을 동여댔다. 빨리 달리고 싶은 마  
음에 자꾸만 헛손질하는 아이들에게 봉사단은 꼼꼼히 버클을 채워  
주고 안전모를 씌어주며 안전에 신경을 기울였다. "선생님 우리 빨  
리 들어가요!" 준비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 둘 줄지어 실내로 향했다.  
삼삼오오 무리지어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복도 하나를 지  
나는 짧은 거리를 가득 매웠다.





교감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담고 있는 봉사활동이 아닐까.

**손에 손을 잡고 달려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지어진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인 만큼 어린이회관의 실내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아이들의 시선에 맞도록 계단과 의자가 갖춰져 있었다. 봉사단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떨어질 만한 소지품을 한데 모으고 다시 한 번 장비를 점검했다. “선생님 빨리요.” 들뜬 아이들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봉사단은 힘차게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한 번 달려볼까?” 봉사단이 앞서 이끌며 등을 내어주자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레 내딛던 아이들이 서로의 등과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 인라인스케이트를 접해본 아이들은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고 애타게 선생님을 찾으며 서서히 적응해 나갔다. 한 손으로 가장자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휴식을 즐기는 대학생봉사단

리를 두르고 있는 붓을 잡고, 한 손으로 봉사단의 손을 잡으며 배워가자 아이들은 금세 봉사단을 앞지르며 실내인라인스케이트장을 누볐다. “선생님, 우리 술래잡기해요! 잡히면 다시 술래가 되는 거예요.” 미끄러운 바닥에 두려워하던 아이들의 눈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볼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인라인스케이트는 멈출 줄을 몰랐다.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해요**

2시간 넘게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긴 아이들과 봉사단은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 점심을 먹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에서는 스마트폰 게임보다 직접 만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체스와 각종 보드게임이 준비되어 있어 점심이 오기 전의 짧은

시간에도 봉사단과 아이들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다. 열댓 명이 넘는 아이들을 인솔하느라 지쳤을 법도 한데 봉사단은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소중한 교감을 나누었다. 운동 후 꿀맛 같은 점심 짜장면이 도착하기 전, 세플러코리아에서 준비한 색칠 도구가 도착했다. 봉사단은 하나하나 비닐 포장을 벗겨내고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을 증정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작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서히 친해질수록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며 봉사단은 이번 봉사활동의 소감을 고백했다. 이후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 “세플러코리아와 4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의 김혜옥 센터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세플러코리아와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가 함께한 선물 증정식

**+ mini interview**

전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4학년  
김인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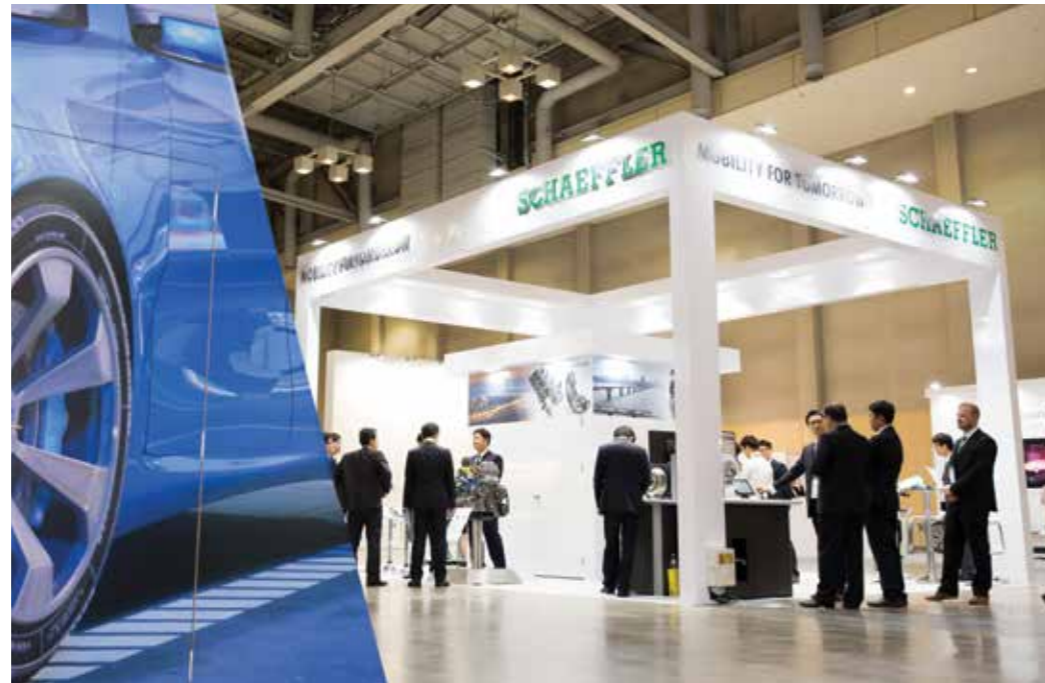


평소에 ‘유년시절에 진심으로 다가서는 멘토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되고 싶어 다가가게 되었고, 이런 진심이 통했는지 찾아갈 때마다 반겨 주어서 행복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외부로 나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서 직접 손을 잡고, 등을 밀어주니 아이들과 한결 친해지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  
박혜진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는 처음이라 처음에는 다가가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 정말 기뻐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만나고 밖에서 인라인스케이트도 타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이 성장할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몇 번 남지 않은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 미래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사고, FISITA 2016을 가다

부산 벡스코에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된  
제39회 FISITA 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FISITA 2016은  
'미래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사고'라는  
주제로 펼쳐졌으며,  
오토모티브 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했다.

### 전 세계 38개국 자동차공학회가 함께하는 FISITA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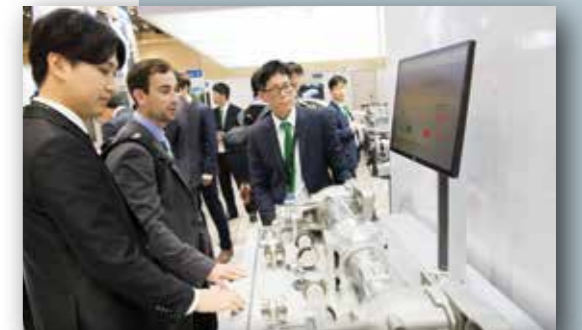
FISITA(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utomotive Engineering Societies)는 각 산업 분야의 전문가, 엔지니어 및 경영자간 정보 교류와 최신 동향의 논의를 통한 오토모티브 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47년 설립된 협회이다. 전 세계 38개국 자동차공학회가 함께하는 학회 연합체로 2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진행된 건 2000년 이후 두 번째다. 올해는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주관하고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메인 후원사로 참여했다.

### 자동차 분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

FISITA 2016의 주제는 '미래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사고'다. 박정길 현대자동차 부사장, 슈테판 피싱어 FEV그룹 CEO, 마커스 하인보쉬 부회장 등 자동차 업계 리더들이 발표자로 나서 자동차 분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회 기간 동안 참여 업체들의 전시는 물론 기술발표와 포럼, 700편 이상의 논문 심사 등도 이어졌다.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참가자들 간 토론과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외 35세 이하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 의회 등에서도 9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행사의 후원사 중 하나로 행사에 참가한 세플러는 엔진, 트랜스미션, 샤시 분야의 7개 제품 전시와 함께 오토모티브 분야 전반에 걸친 세플러의 다양한 제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Glass Car 프로그램의 시연을 통해 전시품 이외에 세플러의 신기술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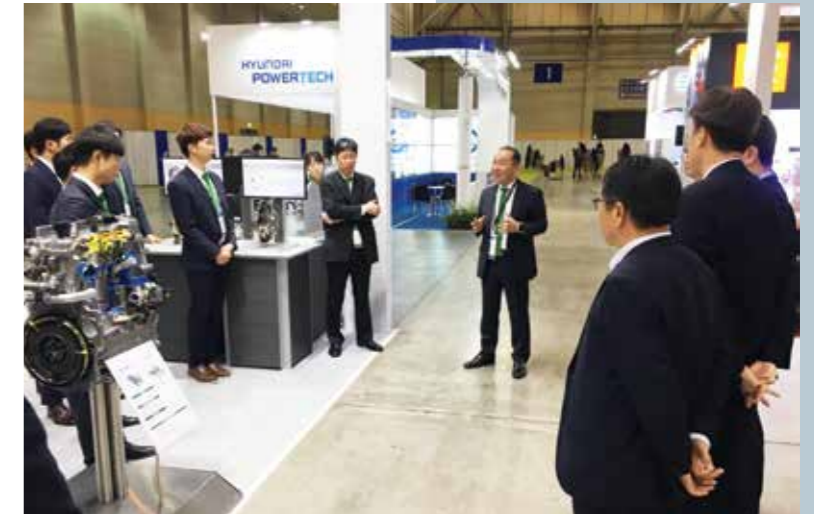
### 세플러 전시 제품

엔진	유니 에어 적용 크라이슬러 타이거 샤크 엔진 Chrysler Tiger Shark Engine (Uni air)	
트랜스미션	E-클러치 E-Clutch	
	CPA 장착 ITC ITC with Centrifugal Pendulum Absorber (FKP)	
	리어액셀 디퍼렌셜 Rear axle differential (TBB)	
	CPA 장착 토크 컨버터 Torque Converter with Centrifugal Pendulum Absorber	
샤시	전자식 제어장치 Electric Roll Stabilizer (Anti-roll bar)	
	플랜지 장착 휠 베어링 Wheel bearing to flange-mount driveshaft	



**새롭게 진행된 IPS  
(Interactive Progress Session)**

FISITA 2016에서 제품 전시와 기술 포럼 이외에 참가자와 발표자가 서로 간에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IPS(Interactive Progress Session)도 새롭게 진행되었다. 세플러는 한국 엔지니어를 비롯하여 독일, 미국에서 초빙된 각 제품별 엔지니어들이 참여하여 세플러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 제품과 함께 참가자들과 더욱 더 가깝게 소통할 목적으로 특별히 전시 부스에서 진행된 IPS 발표 간에는 각 주제별로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 발표자와 함께 세플러 신기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이병찬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행사에 참가한 엔지니어들에게 신기술을 소개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VIP의 관심을 끈 세플러의 기술**

행사 일정 간에 진행된 FISITA VIP 투어 간에는 각 후원사별 주요 인사 및 권문식 부회장(현대자동차그룹 연구개발본부 본부장)이 세플러 전시 부스를 방문하여 연비 및 토크 향상을 꾀할 수 있는 UniAir 적용 타이커 샤크 엔진(크라이슬러에 적용), 위치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클러치를 작동시켜줌으로써 연비 효율을 높여주고 CO2 배출량도 감소시킨 e-클러치 및 높은 수준의 주행 안전성과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하는 e-ARS(전자식 제어 장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4일간의 전시일정 동안 자동차 산업 분야 엔지니어 약 600명 이상이 세플러 부스를 방문하여 높은 수준의 세플러 기술을 관람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권문식 부회장은 FISITA VIP들과 함께 세플러 부스를 방문해 세플러의 신기술들을 둘러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와 발표자가 서로 간에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IPS가 새롭게 진행됐다.

**IPS(Interactive Progress Session) 발표 주제**

주제	발표자
FACE SPLINE DESIGN FOR WHEEL BEARINGS	Dr. Tomas Smetana
UNIAR - Fully Variable Valvetrain System	Dr. Jinku Yeo
3rd Generation Pendulum in Torque Converters	Mr. Markus Steinberger
MANUAL TRANSMISSION ELECTRIFICATION - An Opportunity for the Future?	Mr. Dominik Reichel
ELECTROMECHANICAL ROLL STABILIZATION for passenger Vehicles	Dr. Tomas Smetana

## 신입사원 1주년 기념 교육



지난 7월 20일, 21일 양일간 전주연수원에서 신입사원 입사 1주년 기념 교육을 실시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화합을 다지고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자 시행된 이번 행사의 요모조모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행사 참여자는 지난해 입사한 상반기, 하반기 입사자 24명으로 서로 입사 기간과 기수가 다르지만 한자리에 모여 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앞으로 회사 생활에 더욱 힘찬 발돋움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각 사업장의 업무를 잠시 내려 놓고, 풍성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플러인으로서는 기본 소양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 자리가 되었다. 1박 2일 일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입소 후 연수원 내 숙소에서 각자 방배정을 받았다. 교육기간 동안은 외부 출입이 금지되고 연수원 내에서만 생활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입소식 이후 첫 번째 프로그램은 '세플러코리아 Dream-on T.O.P'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몸을 움직이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가수와 상관없이 각각의 팀을 나누어 교육이 진행 되기에 우선 팀워크를 가지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은 전략기획 김형덕 부장이 준비한 자료와 강의를 통해서 세플러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식 이후 진행된 세 번째 프로그램은 1주년 기념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이었다. 케이크 만들기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대해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운 후 각 조별로 나눠 1주년 기념 케이크를 만들었다. 케이크에는 각 조의 회의를 거쳐 1주년을 상징할 수 있는 케이크 디자인에 돌입했고, 아이디어와 개성이 넘치고 재치 있는 케이크 작품이 만들어졌다. 케이크 만들기 이후 쿠키 만들기도 진행됐는데 각각의 소망을 쿠키에 적어 보는 더욱 의미 있는 자신만의 쿠키를 만들어 냈다.

교육 둘째 날에는 '구체적으로 설계하라! - 비전 플레이팅'이란 제목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롤러코스터 만들기를 통해 협업

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설정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중식 이후 실시된 두 번째 프로그램은 '긍정변화를 실행하라! - 비전 플레이팅'이라는 제목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도자기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미 만들어진 도자기 접시에 도자기 전용 염료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 완성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각자가 지닌 미래의 꿈을 주제로 도자기 만들기를 진행했는데, 그림 솜씨에 상관없이 각자의 꿈과 개성을 잘 표현해 내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 냈다.

이후 설문조사와 수료식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1년 동안 세플러인으로 거듭난 신입사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힘차게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본다.



##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경영층 안산공장 방문



지난 8월 31일 현대기아자동차의 연구개발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양웅철 부회장을 비롯하여 파워트레인담당 문대홍 부사장, 기술리·디젤엔진개발센터 김우태 전무, 연구개발기획조정실 조성환 전무, 구동부품개발실 민철규 상무, 기술리엔진개발실 김흥철 이사 및 R&D 품질강화추진단 김선민 이사 등 총 7분의 경영층이 안산공장을 방문하였다. 본 방문의 배경은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경영층과 협력사 간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및 소통 강화로 상호 간의 R&D 방향성 공유, 협력사 자체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었다.

당사에서는 그룹 엔진시스템 총괄사장인 Mr. Klaus Cierocki, 세플러코리아·안산 대표이사 이병찬 사장, 엔진시스템사업부 남장현 상무, 현대 GKAM 김재원 상무, 안산연구소장 여진구 상무, 품질담당 승철진 상무, 안산 공장장 이상춘 상무 등이 배석하여 방문객들에게 약 2시간 동안 안산 R&D 시험설비와 안산공장을 소개하고 기술개발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안산 연구소의 시험 담당자와 공장의 프로세스·공정기술 담당자들이 방문객들에게 TMM, 벨트텐셔너 및 밸브트레인 시험설비와 공장의 TSTM 및 SLH·ASEH 생산 공정을 소개하고 현대기아자동차의 적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양웅철 부회장을 비롯한 방문 중역들은 크지 않은 규모의 공장 및 시험 시설이지만 잘 정돈되어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기대 이상의 호평을 하였으며 담당 엔지니어들에게 격려와 함께 문제없는 제품 생산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Mr. Cierocki 사장과 이병찬 사장의 세플러그룹 엔진시스템 사업부 및 안산공장 소개에 이어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와 세플러 엔진시스템의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상호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세플러안산의 자체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웅철 부회장은 전체적으로 당사의 시험·생산 설비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 엔지니어들의 역량에 만족을 나타내었으며 본 행사 준비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세플러 엔진시스템이 추구하고 있는 가변밸브기구 및 TMM 등 미래 엔진기술에 대한 준비가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의 기술방향과 효과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 인상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현대기아자동차의 지속적인 성장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상호협력을 당부하였다.

## 아시아퍼시픽 CEO 타운 홀 미팅 개최

지난 8월 25일, 국내 회의 일정으로 방한한 Andreas Schick(세플러 아시아퍼시픽 CEO)과 Matthias Zink(세플러그룹 트랜스미션 시스템 총괄 사장)의 타운 홀 미팅이 진행되었다. 화상 장비를 통해 서울사무소 및 창원, 안산, 전주, 연구소의 사무직 임직원들이 각 사업장에 준비된 장소에 모여 프레젠테이션을 경청했다. 각 사업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Shinzo Yotsumoto(세플러 재팬 CEO)도 함께 배석하여 질문에 답했다. 올해로 근속 25주년을 맞이한 이병찬 대표이사에게 Mr. Schick이 미리 준비한 근속 기념 액자도 전달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 서 . 을 . 사 . 무 . 소

### 대학생 봉사단 서울지역 봉사활동



● 7월 23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군의 농가를 방문해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20명의 대학생 봉사단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잡초 생장 방지를 위해 단호박 밭의 밭이랑을 덮는 작업을 진행했다. 8월에는 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인 성모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지적장애인과 함께 실내에서 부채 만들기를 진행했고, 9월에는 추석을 맞아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하는 송편을 함께 만들어 기부했다.

### 임직원 대상 타운 홀 미팅



● 7월 26일, 서울사무소 사원~과장 직급을 대상으로 하는 이병찬 대표이사의 타운 홀 미팅이 진행되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매니저 대상의 타운 홀 미팅 일정이 끝나고 서울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번 타운 홀 미팅 간에는 경영 현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대표이사와 함께한 자리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이 오갔다. 참가한 직원들은 평소 근무 간에 궁금했던 다양한 정책들이나 대표이사의 향후 경영 계획 등을 전해 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세플러 그룹 CEO 타운 홀 미팅 개최



8월 31일, 아시아퍼시픽 지역 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Mr. Claus Rosenfeld(세플러 그룹 CEO)의 타운 홀 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4월에 이어 그룹 CEO와 지역별 임직원이 소통할 기회를 목적으로 준비된 이번 타운 홀 미팅은 Claus Rosenfeld의 싱가포르 방문 일정 간에 아시아퍼시픽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주관하여 같은 시간대 아시아퍼시픽 지역 내에 미리 설치한 화상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사무소 및 창원, 안산, 전주, 연구소의 사무직 임직원들은 준비된 장소에 모여 Claus Rosenfeld의 프레젠테이션을 경청했다.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국가별 사업장에서 사전에 받아 정리한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도 긴 시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김영란법 관련 사내 특강



● 9월 19일,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원 변호사를 초빙해 김영란법에 대한 사내 특강을 진행하였다.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주관한 이번 특강에는 서울사무소 임직원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임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경청했다.

### 2016년 내부 감사 실시

●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약 10일의 일정으로 독일의 감사팀이 방한하여 그룹사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사무소를 시작으로 창원, 전주, 안산의 사업장과 함께 안성 물류까지 내부 감사를 받았으며, 해당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부터 TUEV(Technische Ueberwachungs-Verein, 기술검사협회)가 주관하는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공장

### 창원공장 3/4분기 협력업체 간담회 실시

● 창원공장 환경안전 부서에서 주관하는 3/4분기 협력업체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분기 단위로 실시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과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염병 종류와 예방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었다.

### 세플러 그룹 주관 에너지&환경 안전 감사 실시

●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창원 1~3공장 및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그룹 에너지&환경 안전 감사가 진행되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공장 전반에 걸친 환경 안전 기준에 대한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이번 감사는 현장 중심 감사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침과 절차서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창원공장에서는 2016년 9월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 임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성희롱 사례들을 토대로 근무 시간에 맞추어 전 임직원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전주공장

### 임직원 대상 타운 홀 미팅 시행

● 9월 29일, 이병찬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타운 홀 미팅이 전주 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사원부터 과장까지의 직급이 참여하는 이번 미팅에는 12명의 직원이 미팅에 참석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영 현황에 대한 이해와 대표이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산공장

### 안산공장 자전거동호회 정기모임



● 8월 27일, 안산공장 자전거 동호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대부도에서 전곡항까지가는 약 80km의 자전거 길을 완주했다. 9월 10일에는 안산시 호수공원에서 열린 '제3회 안산 World Peace 자전거 대축전'에 참가하여 참가자 모두가 상급자 코스를 좋은 기록으로 완주했다.

# Schaeffler Hotline

서울사무소

2016. 5

창원물류 권창오 | 30일 장인상

2016. 6

중부지사 해외영업 최종홍 | 9일 장인상

회계 김옥중 | 23일 모친회갑

엔진 콤포넌트 BU 영업 이현직 | 27일 부친상

Corporate Data Management LOUREIRO, GABRIEL | 29일 친조부상

2016. 7

Asia Pacific Finance 박현성 | 2일 모친회갑

창원물류 김진호 | 5일 부친상

엔진 콤포넌트 BU 영업 이복순 | 6일 모친상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영업 왕희성 | 11일 모친회갑

2016. 8

중부지사 해외영업 박은선 | 3일 시모회갑

System, Process & Controlling 이숙민 | 5일 부친회갑

전주물류 김선아 | 20일 본인결혼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이태양 | 20일 부친회갑

중부지사 직납영업 정우진 | 22일 자녀출산



급여 및 HR 서비스 정은선 | 26일 시모회갑

일반구매 노경탁 | 27일 장인상

2016. 9

HR Development 최진경 | 5일 부친회갑

2016. 11

커뮤니케이션&마케팅 이성규 | 5일 본인결혼



전주공장

2016. 6

열처리 세그먼트 박상현 | 20일 자녀출산

테이프베어링 세그먼트 김민재 | 27일 자녀출산

2016. 7

볼베어링 세그먼트 강성민 | 12일 장인상

협력사 품질개선 박도형 | 25일 자녀출산



2016. 8

볼베어링 세그먼트 윤성길 | 7일 장모상

전주물류 김선아 | 20일 본인결혼



열처리 세그먼트 김준철 | 24일 자녀출산

2016. 9

볼베어링 세그먼트 정희중 | 4일 장모상

2016. 10

품질보증 전주 최미라 | 21일 본인결혼

품질보증 전주 고민재 | 16일 본인결혼



창원공장

2016. 6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영환 | 21일 부친상

단조세그먼트 김수영 | 21일 모친상

LV 테이프베어링 세그먼트 박현일 | 23일 부친상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삼재범 | 24일 장인회갑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이용민 | 25일 조모상

무브 장봉주 | 26일 자녀결혼

살비보전창원 볼베어링 MU 이은상 | 27일 장모회갑

테이프롤러 세그먼트 유정민 | 29일 조모상

2016. 7

공장기술 창원 생산기획 문성호 | 1일 조모상

LV 테이프베어링 세그먼트 장호근 | 8일 부친회갑

생산계획 테이프베어링MU 조성현 | 10일 본인결혼

대형볼베어링세그먼트 송태현 | 16일 장인상

테이프롤러 세그먼트 공동열 | 26일 모친회갑

단조 세그먼트 김용호 | 27일 모친상

2016. 8

선삭세그먼트 이세욱 | 12일 조모상

품질보증 창원 홍우길 | 13일 장인회갑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창원 조완규 | 16일 장인상

LV 테이프베어링 세그먼트 김중욱 | 26일 모친회갑

중형볼베어링세그먼트 송창우 | 27일 부친회갑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창원 황하담 | 28일 자녀결혼

2016. 9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안근 | 3일 자녀결혼

공장기술 창원 생산기획 고강은 | 3일 자녀결혼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이선호 | 17일 부친회갑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이선호 | 17일 부친회갑

연구소

2016. 7

전용기개발팀 조태관 | 17일 장모회갑

제품기술팀 이영호 | 21일 부친회갑

2016. 8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강원환 | 12일 조부상

전용기개발팀 최다운 | 27일 부친회갑

2016. 9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이인욱 | 2일 장인회갑

안산공장

2016. 6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이경천 | 28일 조모상

2016. 7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김성희 | 9일 장인상

엔진 시스템 연구소 서병수 | 9일 모친회갑

2016. 8

엔진부품 세그먼트 한성준 | 20일 부친상

벨트&체인&볼베어링 세그먼트 석정원 | 26일 부친상

2016. 9

엔진부품 세그먼트 서재국 | 3일 장인출산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강한빛 | 3일 본인결혼



2016. 10

엔진부품 세그먼트 이성준 | 1일 본인결혼



엔진부품 세그먼트 조성호 | 3일 본인결혼

